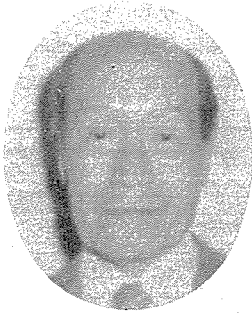


# 元老科學技術者의 証言 <5>

## 1937年 朝鮮植物鄉名集을 발간, 처음 標準植物名 제정



李 德 鳳 博 士

### 李 德 鳳 博 士 篇

#### ◎植物에 대한 親密感

내가 新學問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 우리나라가 日本에 强占되면서 부터이다. 이때 先親과 나는 新教育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10餘年間 익혀왔던 漢學을 집어 치우고 비로소 國民學校와 中學校를 兼한 學校 3學年에 編入하여 공부하기에 이르렀다.

그곳을 卒業하고 1915년 지금의 서울大學校農科大學前身인 水原農林學校에 들어갔다. 그때 水原農林學校주위에는 서울의 林業試驗場 못지않게 우리나라產 나무를 비롯 日本等地의 外國產 나무를 여러가지 심어 놓은 樹木園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곳 樹木園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는 各已 나무이름과 產地 그리고 學名이 日本글로 팻말이 붙어있었고 尙중엔 우리글로 쓰여진 팻말도 있었다.

校則에 따라 學生 全員이 寄宿舍 생활을 하였는데 나는 저녁을 먹은 후 으레 산책삼아 넓은 樹木園을 한바퀴씩 돌았다. 그렇게 樹木園을 도는 가운데 자연히 나무이름을 익히게 되고 이름이 외워지니까 그 植物에 대해 親密感이 느껴지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興味까지 가져졌다.

#### ◎ 略歷 ◎

- 1898.11.16 黃海道 海州出生
- 1918 水原官立農林學校 卒業
- 1962 理博(高大)
- 1936 基督教大韓福音教會長老
- 1945~47 京畿道 獎學官, 서울市教育監
- 1947 淑大 教授
- 1948 韓國大 教授
- 1951 서울大 副教授
- 1951~61 高大 教授
- 1952 東國大 教授
- 1963~71 中央大 教授, 植物學會, 植物分類學會 理事
- 1970~73 植物分類學會長
- ◇ 受 賞: 國民勳章 冬柏章 霞隱植物學賞
- ◇ 著 書: 朝鮮植物鄉名集·大學生物學·實驗植物學·양송이 栽培法

이렇게 植物에 興味를 갖게 된 나는 水原農林學校 우에끼教授와 가까이 지나게 되었다.

우에끼教授는 日本사람이면서도 항상 學者의인良心을 가지고 있었으며 韓國學生에게도 멸시하거나 없인여기는 태도는 조금도 없이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더욱 따랐는지 모른다. 나는 우에끼教授와 함께 많은 植物採集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植物에 대해 알게 되고 앞으로 공부할 생각도 들게 된 것이다.

그때가 日本으로부터 強占된지 10年안팎 —

비단 나뿐만 아니라 韓國學生 모두가 亡國民의悲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공부를 해야 했다.

당시 나는 亡國民의悲哀와 어려운 家庭事까지 겹쳐 심한 煩悶에 빠졌으며 나중에는 不眠症으로 무척 고생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부를 한들 「한국 청년의 나아갈 길이 어디냐」는 막막한 생각이 앞서 정신갈등을 일으켰던 것 같다. 이와 같은 煩悶에서 헤어내기 위해 나는 催眠術 책자도 구해 읽어 보고, 正坐法도 실행해보았으나 煩悶이나 不眠症은 가시지 않고 더욱 惡化되어 산에 들어가 중(僧)이 되어 볼까도 생각했었다.

또 우리나라에서 創始된 天道敎의 人乃天이란 主義가 그럴사해서 天道敎를 믿어볼까도 했었다.

그러나 나는 基督敎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봉자가 많고 대부분 사람들이 基督敎에 入身하면 자연히 態度와 言行이 달라져 安心立命이 되는 것을 볼때 基督敎는 다른 宗教가 가지지 않는 어떤 眞理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되어 누구의 권고도 받지 않고 어느 일요일 혼자 10哩 넘어 있는 敎會를 찾았다.

敎會에 나가자 나보다 먼저 敎會에 나오는 學友들이 찾아와 반가이 맞아 주었다.

나는 이때부터 열심히 敎회를 다녔으며 學友들과 함께 산으로 새벽기도에 나가 기도하고 寄宿舍에서 갖는 수요일밤 집회에 나가는 사이에 信昂이 두터워지면서 煩悶과 不眠症이 차차 가시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부터 基督敎 신자가 되어 불철저한 信昂이지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 ◎植物學의 發展過程

우리나라 植物分類學의 發展進程은 크게 1910년 以前과 以後 時代로 나눌 수 있다.

1910년 以前에는 주로 歐美學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植物을 채집해 갔다. 그 예로 英國의 큐가든 植物園에서는 韓國·日本·滿州 等地에 사람을 보내 植物을 채집해 갔으며 그것을 자료로 專門學者들이 研究한 結果를 자기네 專門雜誌에 발표했는데 당시 이런 일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안다.

이때만해도 日本 植物學者들은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 일본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한 것은 1910년 이후부터이다.

우리나라 식물의 개척자는 아니지만 韓國植物學의 體系를 세워 큰 업적을 남긴 나카이教授도 191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왔었다.

그는 동경제국대학 조수였지만 이미 博士學位까지 갖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植物을 연구하기 위해 朝鮮總督府 勸誘로 왔던 것이다. 그는 韓國에 건너온지 다음해인 1911년 「조선식물」이란 책을 2권이 나 낸 바 있다.

또 경성고등보통학교에 모리敎師가 있었다. 이때만 해도 學科로 動·植物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이를 총괄해서 博物이라 했는데 모리敎師는 博物선생이었다.

모리씨는 우리나라 곳곳을 열심히 답사하면서 動·植物에 대한 연구를 했다.

이런 결과 1922년 그의 著書로 「朝鮮植物名誼」가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식물을 체계있게 분류한 것으로 후진 식물학도들에게 중요한 연구자료가 되었다.

모리씨는 당시 청량리에 있었던 경성제국대학에 과 교수가 된 후부터 식물 연구는 하지 않고 어류·포유류·곤충등 동물연구에 전념했다. 아마도 그는 식물학자로 유명한 나카이教授나 미끼씨에게 당할 수 없어 植物專攻을 포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1922년에는 우리나라에 체재하고 있는

日本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박물학회」가 조직되었었다.

일본학자들의 독무대인 「조선박물학회」엔 식물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 몇이 그들의 쫓무니를 따라 다녔다.

그들과 함께 다니며 이야기를 듣고 동·식물에 대한 지식을 넓혀갔는데 그때 주요 멤버는 나를 비롯 정태현·박만규·장현두·석주명씨 등이 있다.

이러기를 수년 - 그들을 따라 다니다 보니 멋진 생각이 들어 더이상 「조선박물학회」에 더부살이를 하기가 싫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사람끼리만 학회를 하나 만들자고 했다.

이때 순수 한국사람으로 구성된 것이 「조선박물연구회」이다.

「조선박물연구회」는 1935년 나와 정태현·박만규·장현두·석주명씨 등이 주동이 되어 조직한 것이다.

우리는 「조선박물연구회」의 첫째 사업으로 動·植物 展示會를 휘문고등보통학교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 전시회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동·식물 표본과 휘문고등보통학교의 소장표본까지 진열하고보니 상당히 큰 규모의 博物展示會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선 사상 처음 갖는 動·植物展示會인 것이다. 이같이 뜻깊은 展示會가 열리게 되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해 줬고 일반관람은 물론 특히 사립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관람했다.

이때 우리들이 전시회를 계기로 절실히 느낀 것은 우리나라말로 통일된 식물 이름이 없다는 것을 크게 수치스럽게 여겼었다.

우리나라말로 식물이름이 나온 史料는 고려때의 鄉藥救急方 및 태종때의 「향약집성방」에 이두문으로 된 것과 또 동의보감에 단편적이거나 조금씩 나와 있다.

그리고 1922년 모리教授가 만든 「朝鮮植物名誼」는 자기가 조사한 나름대로 일본글「가나...」

순으로 써 놓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우리 말을 찾아 정확한 식물이름을 붙여 체계있게 집대성 해야겠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연구를 하기로 했다.

박물교사인 정태현씨와 도봉섭씨·이재휴씨 그리고 나는 휘문고등보통학교 숙직실에서 1주일에 2~3번 모여 자기가 아는 식물을 내놓고 하나 하나 설명을 한다음 그 식물들의 표준명칭을 우리말로 정하고 부가적으로 地方名이나 異名등도 있을 때 기록해 나갔다.

이 작업은 2년동안 계속되었는데 전부 모으고 보니 2,000餘種이나 되었다.

우리는 비로소 한국식물 이름을 체계있게 모은 「朝鮮植物鄉名集」이란 책을 1937년에 출판했다.

그것이 한국사람으로 식물을 현대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배열하고 또 거기에 한국식물의 標準名을 정한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인 것이다. 물론 여기엔 일본말도 들어갔고 學名도 써 넣었다.

「朝鮮植物鄉名集」은 지가다와라는 곳에서 출판은 하고 총판은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했다. 한성도서주식회사는 종로베거리서 안국동으로 가는 도중 좌측 모퉁이에 있었는데 당시 李宣根博士도 그곳에 근무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식물표준명이 「朝鮮植物鄉名集」을 만들 때 査定한 것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朝鮮植物鄉名集」을 출간할 무렵 당시 약학전문학교에 있던 도봉섭씨와 심학진씨등이 「중부조선식물명집」을 냈었다. 「중부조선식물명집」이라 하면 서울을 비롯 경기·충청·강원도에서 나는 식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중부조선식물명집」 출간준비는 우리나라 사람외에 소수의 일본 교수도 가담한 것으로 안다.

「중부조선식물명집」은 약학전문학교의 식물동호회가 주동이 되어 출간했다.

내가 속해 있는 조선박물연구회는 해방되기전까지 지속되어 오다가 해방후 조선박물연구회와 박

물교원연구회등과 합쳐 조선생물학회를 발족 새출 발을 했다.

조선생물학회는 정부수립과 동시 이름을 한국생물학회로 바꿔 졌다. 그러던중 한국생물학회는 식물학회와 동물학회로 나누어졌는데 이 두 학회를 총괄하는 기구로 한국생물과학협회를 만들었었다.

이와 같이 식물학회와 동물학회는 독자적으로 발전을 하여 오다가 또 미생물학회·육수학회·응용동물학회·생물교육학회·식물분류학회등 분과별로 나누어졌다.

이들 분과학회는 모두 한국생물과학협회 산하에 있었다.

### ◎植物學의 先驅者들

우리나라 식물학의 선구자를 손꼽자면 제일먼저 정태현씨라 하겠다.

정태현씨는 일본의 대 학자 나카이씨를 따라다니며 익히고 실물을 봄으로써 자연히 식물학에 대한 연구가 깊어졌고 1940 년경 「조선수목도설」이란 책도 낸 바 있다.

그다음 박만규씨를 들겠는데 그는 전라도에서 중학교 교사로 있다가 서울로 와서 경기중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도 식물에 대한 연구가 깊었고 식물연감도 썼으며 두뇌가 남보다 특출하여 주위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한 장현규씨도 「조선박물연구회」 창설 이전부터 나와 같이 식물연구에 전력을 다했고 그후 전라남도에서 내려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밖에 동경대학 약학부를 졸업한 도봉섭씨는 열심히 채집하여 식물표본을 정밀하게 만들어 자기 집에 싸 놓았었다. 그후 도봉섭씨는 木本만을 출판한 정태현씨와 손을 잡고 草本 제작 준비까지 한 바 있다.

도봉섭씨도 草本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식물표본을 종로4가에 있는 조모씨의 허술한 3층콩크리트 건물에 가져와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모두

그리개까지 하였다. 한편 정태현씨도 임업시험장에 있는 식물표본을 끌어 내 종로에 가져 왔으나 6.25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추진하던 草本제작은 완성을 못보고 말았다.

그런 일이 있는 얼마후 정태현씨는 草本籍을 혼자서 냈고 그의 식물표본은 지금 성균관대학에 대부분 보관되어 있다.

한편 도봉섭씨의 식물표본도 서울대학 식물표본실에 가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서울대학에 있는 식물표본은 2만여종이 넘게 있다.

### ◎植物學의 史觀

나는 생물학사를 쓰면서 우리나라의 자료를 들춰보니 이들 자료는 생물학이라 할 수 없었다. 다만 생물학적인 단편적 자료를 모아다 놓은 것으로 생물학 이전의 생물학적 발전과정을 보는데 지나지 않았다. 즉 의학·식물·동물학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모두 뒤섞여져 있어 근대 과학적인 입장에서 볼때 생물학의 부재를 엿볼 수 있었다.

식물학사는 종적으로도 볼 수 있고 횡적으로도 볼 수 있다.

종적이라는 것은 곧 세월이 흐름에 따라 식물학이 변천해가는 과정을 살피는 것이다.

따라서 식물학은 시대가 변천됨에 따라서 차차 각 분과로 발전되는 것이다.

그 분과적인 것은 횡적인 연계가 있다. 그러므로 식물학의 발전과정을 볼려면 횡적인 관계를보아야 하는데 미발달 시대에는 연대순으로 살피게 되고 학문이 각 분과로 나뉘어 발달한 후에는 분야별로 살펴보면서 주관이나 사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령 식물분류학과 식물생리학 및 식물신타학의 발달과정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라 하겠다.

### ◎生物學史側面에서 본 未解決의 章

우리나라의 식물명이나 동물명이 수록된 것은 주

로 의서 또는 경제서인 백과사전식의 산림경제·임원경제지인데 여기에 나오는 식물이름은 거의 동의보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소엽·갈근·삼주·산약등 1,000餘種의 식물이름이 한문으로 나왔으며 이것들을 현대과학적인 식물분류학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어느 종류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

또 고려말에 출판된 향약고급방의 부록 방중향약목에 이두문으로 수록된 식물(약재) 170餘種의 해독도 문제였다.

나는 이것을 아는데까지 해독은 했으나 모르는 게 더 많았다. 나는 하는 수없이 양주동박사의 도움을 받아 해독은 전부 마쳤으나 이것 역시 어느 종류에 해당하느냐 몰랐다. 그래서 나는 이를 알아내기 위해 중국 의서와 우리나라 의서를 모두 뒤져보았다.

중국 의서에는 주로 명나라때 이시진이 한 사람이 쓴 본초강목에 이들 식물의 종류와 산지등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나는 여기에 수록된 식물의 산지와 종류를 정확히 규명하고 학명을 기록하여 「향약고급방 방중향약목」이란 논문을 고려대학교 논문집과 고대부설 아세아문제연구소 잡지에 발표했으며 그뒤 약사회지에도 냈다.

그러나 「방중향약목」에 기재되지 않은 식물들이 「동의보감」에는 많이 있었다.

나는 이것을 정확한 식물의 종류가 어느 것인가를 연구해서 밝혀보려고 노력도 해보았으나 교단에서 물러서고나니 쉽지 않았다.

학교에 있을 때에는 도서관이나 창경원의 장서각을 찾아다니며 문헌을 들여다 보고 연구했으나 지금은 눈의 피로는 물론 기력이 미치지 못해 어렵게 됐다.

나는 지금도 식물학에 뜻이 있고 한문지식이 약간 있는 젊은 학도가 있으면 지도해서 동의보감에 있는 식물을 밝혀보고 싶으나 그 완성은 어려운 것 같다.

또 한가지 내가 못다한 것이 있다면 「한국식물

총람」의 발간이다.

박만규선생이 우리나라 식물연감을 냈고 또 원자력연구소의 안鶴洙씨가 식물연감을 냈는데 이들 연감은 대부분 1937년 우리 몇몇이 출판한 조선식물향명집의 것을 그대로 계승해서 출판되어 별문제는 없었으나 이 속에 자기 주관대로 써놓은 것이 있어 한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즉 이 두책의 내용이 약 3~4%는 한 식물인데 이름이 각자이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 있는 식물학회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통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강력히 나왔다.

이때부터 서울대학교 정용호교수는 여자대학원생을 데리고 4년간 同物異名 식물을 정리하고 책을 출판하려했으나 이것 또한 학자들간의 의견이 엇갈려 끝내 빛을 못 보았다. 이때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보면 — 당시 우리나라 식물학계는 일본 가까이서 추종파와 이의 반대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무렵 가까이씨는 한국에 체재하면서 연구한 것을 토대로 조선식물경제라는 책을 내어 새로운 체계를 세워 나갔다. 이 조선식물경제는 가까이씨 나름대로 자기 주관을 많이 섞어 모험을 시도한 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까이씨를 추종하는 쪽에서는 『나카이씨만큼 우리나라 식물에 대해 철저히 연구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조선식물경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까이씨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달랐다. 물론 우리나라 식물에 대해 연구한 업적에 대해서는 수고는 가나 학문적인 입장에서 볼때 어떤 시도에 불과한 조선식물경제는 그때까지 한국학자들에게 정식발표도 되지 않았던 것이었고 더우기 일본에서조차도 『그 영감쟁이 망령이 들어서 그런 것을 냈다』며 『조선식물경제를 발표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까지하여 따르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양파간의 「따라야 한다」와 「따를 수 없다」로 논란이 계속되었었다.

결국 식물학계에서 가장 노장인 나카이씨의 비위를 거슬릴 수 없는 우리나라 학계는 책을 만들지 못하고 준비해 놓은 카드를 싸놓았던 것이다.

그후 나카이씨가 죽은 후 책을 만들려고 하자 또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신진학자들의 반대에 부닥쳤었다.

즉 이들 신진학자들은 전문분야별로 좀더 철저한 연구로 정확한 학명이나 식물이름을 파악한 다음에 연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식물분류학에 종사하는 학도들이 아주 소수였었다. 왜냐하면 식물분류학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었다.

식물분류학을 하려면 수년간 험난한 산야를 쫓아 다녀 식물을 채집하고 표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사람의 인내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 식물표본을 했다 해도 식물분류학은 다른 연구와 같이 시험관이나 시약으로 단시일에 결론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젊은 학도들이 식물분류학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나는 후계자가 있다면 고려대학교 김인식교수 외에는 별로 양성도 못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하여금 끝내 한국 식물총람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나의 가장 못다이룬 숙원사업이다.

## ◎基礎科學育成 중요

분류학은 어느 학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학문의 입구요 출구이다. 따라서 나는 분류학이 없이는 다른 학문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학문을 하자면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모두 파악되지 않고 부정확한 자료로 어떻게 학문을 할 수 있겠는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은 전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다.

가령 식물생리학이나 식물생태학을 할 때일지라도 분류학의 기초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해야만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물학계서는 옛날부터 분류학을 고전학문이라고 해서 경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나는 분류학이야말로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의 젊은 학도는 다른 분야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지만 될수 있으면 식물학에도 눈을 떠 흥미를 갖고 공부하는 많은 후진이 나와 주었으면 한다.

정부에서 응용과학육성에만 치중한 느낌이 없지 않으나 요즘에 와서는 소홀했던 기초과학육성에도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 같아 후진들에게 밝은 전망이고 보면 식물분류학의 발전등에 상당히 기대된다.

